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목표 일관성에 대한 검토

이 주 섭*

〈 목 차 〉

- I. 서 론
- II.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분석 방법
- III.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과 특징
 - 1.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 2.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의 특징
- IV.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사례 분석
 - 1. 대단원 내의 목표가 모두 일관성을 지닌 유형
 - 2.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유형
 - 3. 대단원 학습 목표가 변형된 유형
 - 4. 평가 학습, 수준별 학습 목표가 변형된 유형
- V. 결 론

I. 서 론

주5일제 수업을 비롯한 시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될 시점에 이르면서 새 교과서 개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교과서 개발에 대한 논의

*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는 현행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관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가 처음 적용된 시점이 2000년이었으니 2006년 현재 6년이 경과한 셈이다. 이전 교육과정기의 국어 교과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러한 변화가 적절하고 타당했는지 등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대단원 체제에 초점을 두려고 하였다. 대단원 체제와 관련해서 특히 대단원 목표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어 교과서에서 단원 목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가 한 학기당 15개, 1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한 학기당 총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대단원에는 국어과 교육 내용 체계에서 제시한 '실제 범주'의 언어 사용 목적(정보전달, 설득, 정서표현, 친교)을 배당하였다.

대단원 체제가 주는 이점은 많다. 대단원별로 '실제 범주'를 하나씩 분담함으로써 국어과 교육 내용 체계와 교과서가 긴밀하게 대응하게 되었고, 하나의 대단원 내에 유사한 성격의 교육과정 내용을 한데 묶어 외형적으로는 학습량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학습량이 줄어 든 대신 대단원 내에 기본 학습(소단원), 평가 학습(되돌아보기),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등의 학습 단계를 두어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게도 되었다.

대단원 체제가 지닌 이러한 이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대단원 구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 여러 개의 교육과정 내용을 하나의 대단원에 모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기도 하였고, 일련의 학습 단계(기본 학습, 평가 학습, 수준별 학습)를 거치는 동안 대단원 목표가 실종되고 엉뚱한 목표를 학습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대단원 내의 각 학습 형태마다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전체 대단원을 관통하는 동일 목표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단원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단원 체제의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단원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단원이 많다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목표를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내의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목표와 관련지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차기 교과서 개발에 시사를 얻고자 한다.

II.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분석 방법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 대단원에 제시된 총 147개의 대단원 학습 목표(1학년 27개, 2, 3학년 각 30개, 4, 5, 6학년 각 20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과 대단원 내의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목표가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학습 유형이 의도하는 목표를 일람할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작성된 표의 예는 <표 1>과 같다.

<표 1> 목표 일관성 분석을 위한 일람표의 예¹⁾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 (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 내용
					교 내	단 원	평 가	수 준	
1-1 1정보	• 들(4)즐거 듣는 습관을 지닌다. • 들(5)자신감 있게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바른 자세로 들을 수 있다. •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른 자세로 듣는 태도를 지닌다.	•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른 자세로 들을 수 있다.(보충, 심화)	○	○	○	○	
1-2 2정서	• 들(3)말의 재미를 느끼며 듣는다. • 말(2)재미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 문(1)작품에 표현된 말에서 재미를 느낀다.	• 시를 듣고 흉내 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흉내 내는 말을 넣어 이야기를 꾸며서 말할 수 있다.	• 흉내 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살려 글을 읽을 수 있다.	• 시를 듣고 흉내 내는 말을 찾을 수 있다.(공통) • 그림을 보고 흉내 내는 말을 넣어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서 말할 수 있다.(공통)	○	○	△	○	* 대단원 목표인 *가 평가 목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1-3 3설득	• 말(4)뚜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 들(2)서로 다른 말 소리를 식별한다. • 들(5)자신감 있게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공통)	○	○	○	○	
1-4 4친교	• 들(4)즐거 듣는 습관을 지닌다. • 말(6)말하기에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알맞은 인사말을 할 수 있다.	• 아픈 친구를 위로하는 전화할 수 있다.	• 그림에 알맞은 인사말을 할 수 있다.(보충) • 전화로 말을 바르게 주고 받을 수 있다.(보충) • 웃놀이를 하며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할 수 있다.(심화)	△	○	○	○	* 교육과정 내용이 대단원 목표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전체 단원 분석은 한국교육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애연, 서민정, 안계용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표 1〉의 음영 부분은 대단원 목표(단원)와 비교하게 될 교육과정 내용(교내), 그리고 대단원 내의 평가 학습 목표(평가), 수준별 학습 목표(수준) 사이의 관련성 지표이다. 목표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단원 목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련성을 따지자면 교육과정 내용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단원 내의 내적 질서를 우선하여 살피기로 하였으므로 대단원 목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목표 사이의 일관성 정도는 ○, △, ×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에는 없으나 대단원 목표가 추가된 경우이거나 대단원 목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평가 학습이나 수준별 학습에 추가된 경우는 '추가'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학습 목표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으로 표시하였다. 목표 일관성에 대한 판단 지표와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표 2〉와 같다.

〈표 2〉 대단원 목표의 일관성 판단 지표

일관성 판단 지표	내 용
○	대단원 목표와 같은 경우
△	대단원 목표와 비교하여 일부만 포함되었을 경우
×	대단원 목표와 비교하여 상관성이 낮거나 다른 목표가 제시된 경우
추 가	교육과정 내용에 없는 내용이 대단원 목표에 추가되었거나 대단원 목표와 비교하여 평가나 보충·심화 목표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경우
상 황	대단원 목표와 의미는 같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학습 목표로 제시한 경우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의 목표 간의 일관성 정도를 학년별로 양적으로 분석하여 일관성 유형을 찾고 전체적인 특징을 추출하였다. 둘째, 목표 일관성과 관련해서 특이한 경우이거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과 특징

1.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목표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목표 일관성 분석을 위한 일람표(〈표 1〉 참조)'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목표 사이의 일관성 유형은 모두 19가지로 나타났다. 〈표 3〉은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19가지와 학년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유형	목 표 일 관 성				학 년 별 교 과 서						합 계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목표	1	2	3	4	5	6	
유형 1	○	○	○	○	13 (48.2%)	15 (50%)	16 (53.3%)	10 (50%)	14 (70%)	14 (70%)	82 (55.8%)
유형 2	○	○	○	△	2 (7.4%)	2 (6.7%)	4 (13.4%)	1 (5%)	1 (5%)	2 (10%)	12 (8.1%)
유형 3	○	○	○	×		4 (13.4%)	2 (6.7%)				6 (4%)
유형 4	○	○	△	○	1 (3.7%)	2 (6.7%)	1 (3.3%)	4 (20%)		1 (5%)	9 (6%)
유형 5	○	○	△	△	1 (3.7%)		3 (10%)		2 (10%)	1 (5%)	7 (4.7%)
유형 6	○	○	×	○				1 (5%)	1 (5%)		2 (1.4%)
유형 7	○	○	×	△						1 (5%)	1 (0.7%)
유형 8	○	○	×	×	1 (3.7%)						1 (0.7%)
유형 9	△	○	○	○	3 (11.1%)		2 (6.7%)	4 (20%)	1 (5%)	1 (5%)	11 (7.5%)
유형 10	△	○	○	△			1 (3.3%)		1 (5%)		2 (1.4%)
유형 11	△	○	△	○		1 (3.3%)					1 (0.7%)
유형 12	△	○	△	×			1 (3.3%)				1 (0.7%)
유형 13	×	○	○	○	2 (7.4%)						2 (1.4%)
유형 14	×	○	△	△	1 (3.7%)						1 (0.7%)
유형 15	○	추가	○	○	1 (3.7%)						1 (0.7%)
유형 16	○	추가	○	△	1 (3.7%)	1 (3.3%)					2 (1.4%)
유형 17	○	○	추가	○	1 (3.7%)	1 (3.3%)					2 (1.4%)
유형 18	○	○	상항	○		1 (3.3%)					1 (0.7%)
유형 19	○	○	○	상항		3 (10%)					3 (2%)
합 계					27 (100%)	30 (100%)	30 (100%)	20 (100%)	20 (100%)	20 (100%)	147 (100%)

〈표 3〉의 맨 위에 있는 가로열은 교육과정 내용-대단원 목표-평가 학습 목표-수준별 학습 목표가 일치하는 형태로서 대단원 내의 목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상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대단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내용의 가중치를 판단하여 교과서에 추가하거나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여러 복잡한 변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교과서 개발진의 실수로 목표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다.

2.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의 특징

〈표 3〉은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때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대단원 내 목표 일관성 유형의 양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형 1' 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82회(55.8%)로서 가장 많았다. 교육과정 내용으로부터 수준별 학습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경우,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겠다. 먼저, 저학년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직결되는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습 활동이나 학습 제재에 따라 대단원의 목표나 평가 학습, 수준별 학습의 목표를 변형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학년에 갈수록 어느 정도 학습 유형이 정형화되기 때문에 목표 일관성이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서 개발 상의 시행착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목표의 변형 자체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개발과 보급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순서로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개발된 1, 2학년과 그 다음에 개발된 3, 4학년 교과서는 아무래도 평가 학습과 수준별 학습의 방향과 개념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되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유형 9' 와 같이 대단원 목표가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형태가 여전히 많은 비율(7.5%)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가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고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재해석과 상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 교과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대개의 경우 교사들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으리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별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재구성하기보다는 교과서라는 교량을 통해 교육과정을 인식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교과서의 대단원 목표는 가급적 교육과정의 핵심적 내용과 어긋나서는 곤란하다.

셋째, 전체적으로 평가 학습의 목표가 대단원 목표의 일부만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유형 4, 5, 6, 7, 8, 11, 12, 14 등과 같이 Δ 표나 \times 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총 23회(15.6%)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 학습은 소단원 1과 2를 통해 기본학습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학습 유형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대단원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대단원 목표와 평가 학습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대단원이 많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유형 2'와 같이 수준별 학습의 목표가 대단원 목표와 평가 학습 목표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형태가 12회(8.1%)로서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수준별 교육과정이므로 국어교과서에서도 이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보충, 심화 학습을 위한 수준별 학습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별 학습의 유형은 선택 과제형, 공통 과제형, 혼합 과제형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별 학습 유형이 목표 일관성 유지에 다소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 과제형의 경우에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택 과제형은 학생들이 두 가지 활동 중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와 같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한 가지 학습 활동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대단원 목표가 두 가지이고 수준별 학습 형태가 선택 과제형인 경우에 목표 불일치가 자주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 단계에서 하나의 학습 목표만 선택하다 보니 다른 하나의 목표가 학습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컨대, <5-1-말하기·듣기·쓰기·들째 마당>의 대단원 목표는 '분석이나 분류의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이고, 선택과제형으로 제시된 수준별 학습의 목표는 '일을 분석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와 '분류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수준별 학습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학습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목표 일관성 측면에서 보자면 학생들이 선택한 목표는 결국 대단원 목표의 일부만을 선택한 셈이 된다.

IV.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사례 분석

여기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유형 19가지 중에서 대단원 내의 목표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차기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유형의 실제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대단원 내의 목표가 모두 일관성을 지닌 유형(○-○-○-○)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내용
					교내	단원	평가	수준	
5-1 읽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7)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며 글을 읽는다. • 문(2)작품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관계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며 시를 읽을 수 있다. •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 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을 이해한다.(선택1, 2) •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의 관계를 안다.(공통) 	○	○	○	○	

<5-1-읽기-첫째 마당>의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목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로서 전체 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고 권장할만한 이상적인 유형의 예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읽기 (7)번 내용과 문학 (2)번 내용을 대단원 목표에서부터 수준별 학습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

2.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유형(△-○-○-○, ×-○-○-○)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내용
					교내	단원	평가	수준	
4-1 말듣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4)주제를 파악하며 듣는다. • 쓰(5) 문단을 짜임새 있게 쓴다. • 쓰(7)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틀린 부분을 고쳐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이나 설 명하는 말을 듣고,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자연스럽게 어지거 글씨를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를 듣고,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훌륭한 점을 글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을 듣고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공통)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자연스럽게 어지거 글씨를 쓸 수 있다.(보충, 심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목표나 학습 내용에 *에 대한 부분이 없다.

<4-1-말들쓰-셋째마당>의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쓰기 (7)번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틀린 부분을 고쳐 쓸 수 있다.'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단원 목표에서는 이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 대단원에서는 세 가지의 교육내용을 다루기로 하였지만 쓰기 (7)번의 교육내용은 다른 두 가지의 교육내용에 비해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본시 학습 활동에서는 미약하게나마 관련 활동을 하게 되어 있긴 해도 평가 학습이나 수준별 학습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과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재해석하고 상세화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학년의 국어과 학년별 교육내용 중에는 그 학년의 교과서에서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는 교육내용이 있는 반면 스쳐 지나가듯 다루어지는 교육내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 중 일부는 목표 수준에서 제시되지 않고 활동 수준이나 학습 질문 정도로만 제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육과정 내용마다 가중치를 판단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내용
					교내	단원	평가	수준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1)쓰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쓰(5)쓰기에 대하여 흥미를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게 된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게 된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가 교육과정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2-쓰기-넷째마당>의 교육내용인 쓰기 (1)번은 교육내용 체계상 쓰기의 본질에 해당하며 쓰기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또한 쓰기 (5)번은 쓰기의 태도 관련 범주 내용으로서 쓰기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1학년 2학기 쓰기 4단원의 목표인 '알게 된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다.'는 교육과정 내용이 지니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영역의 경우에 '태도' 범주는 1~6학년까지 전체 대단원을 검토해 본 바, 대단원 목표나 평가, 수준별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본질 범주, 원리 범주와 대등하게 설정된 '태도' 범주는 정작 교과서에서는 학습 활동으로 구현되지 못하였고 교사의 몫으로 떠넘겨져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태도’ 범주가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학생들은 국어 사용의 태도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대단원 학습 목표가 변형된 유형

1) 대단원 학습 목표가 추가된 경우(○-추가-○-○, ○-추가-○-△)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내용	
					교내	단원	평가수준		
1-1 쓰기 1	•쓰(2)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쓴다.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쓸 수 있다. *•차례에 맞게 날자를 쓸 수 있다.	•바른 자세로 날 말을 쓸 수 있다. •날자를 쓰는 차례에 맞게 날말을 쓸 수 있다.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쓸 수 있다. •날자를 쓰는 차례에 맞게 날말을 쓸 수 있다.(공통)	○	추가	○	○	*교육과정 내용과는 상관없는 대단원 목표에 *가 추가되어 평가, 보충, 심화 목표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2-1 읽기 1	•읽(5)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 태도를 지닌다.	*•글을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주고 받을 수 있다. ◆•바른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주고 받을 수 있다. •바른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다.	•이야기를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공통1) •이야기를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주고 받을 수 있다.(공통2)	○	추가	○	△	*는 교육과정 내용에는 없지만 이후의 활동 목표에는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은 보충심화의 목표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대단원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 내용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요구가 있어 교과서에 목표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1-1-쓰기-첫째마당>과 <2-1-읽기-첫째마당>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1-쓰기-첫째마당>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1-쓰기-(2) 연필을 바르게 잡고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쓴다.’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단원 목표에는 이것 이외에 ‘차례에 맞게 날자를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학습 목표는 이후 평가나 수준별 학습 목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이 목표화된 경우와 새롭게 추가된 목표가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목표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1-읽기-첫째마당>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대단원에 반영된 교육과정 내용은 ‘2-읽-(5)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 태도를 지닌다’인데 여기에 ‘글을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목표가 추가 되었다. 평가에도 대단원 목표에 맞게 이 두 가지 목표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준별 학습 목표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는 사라지고 새롭게 추가된 목표에 대한 수준별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의 목표에 대한 수준별 학습이 누락되고 부가적으로 이루어져도 될 부분에 대한 학습이 강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2) 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하지만, 평가, 수준별 학습에서 일부 반영한 경우
(×-○-△-△)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 내용	
					교내	단원	평가수준		
1-2 읽기 2	• 읽(5)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글쓴이나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에 대하여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공통)	×	○	△	△	*대단원 목표에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낸 것과 이야기 속의 인물의 생각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평가나 보충·심화에서는 이 중 이야기만을 제재로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이 의도하는 바와 대단원 목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1-2-읽기-둘째마당>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인 읽기 (5)번이 대단원 목표에나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평가 학습과 수준별 학습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 이 유형은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평가 학습의 목표는 대단원 목표의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다. 평가 목표에 준하여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단원의 수준별 학습 목표 또한 평가 목표의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 목표, 평가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 목표가 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대단원의 학습이 방향을 잃게 되고 학습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의 대단원에서 목표도 다루어야 하고, 언어 사용의 실제(정보전달, 설득, 정서표현, 친교)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이 대단원은 '비판적 설득'이라는 언어 사용 목적을 지향하는 단원인데,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대단원의 목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언어 사용 목적이 강화되는 전도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4. 평가 학습, 수준별 학습 목표가 변형된 유형

1) 대단원 목표의 일부만 반영하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내용
					교내	단원	평가	수준	
3-2 말듣 4	• 문(4)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본다.	• 시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시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시 낭송을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하여 말할 수 있다.(선택1)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선택2)	○	○	△	△	*대단원 목표에서는 시나 이야기를 모두 학습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나 보충심화에서는 이 중 한 가지만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3-2-말듣-넷째마당>의 경우, 대단원 목표에서는 '시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가 제시되고 있다. 대단원 목표에 따라 소단원 학습에서는 시와 이야기를 학습 재대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평가 학습에서는 시만을 그 대상으로 삼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시나 이야기 중에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를 다루게 되는 대단원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나 이야기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단원 목표관련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가 '시와 이야기에 나오는~' 과 같이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나 이야기에 나오는' 과 같이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 수업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짧은 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준별 학습에서는 공통학습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²⁾

2) 대단원 목표에서 시나 이야기를 모두 다루는 학습 목표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8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 목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학습 목표 관련 유형은 목표 관련하여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지닌 유형이다. 특히 보충·심화 학습 부분에서 동일한 학습 목표를 두고 시와 이야기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내용
					교내	단원	평가	수준	
4-2 읽기 2	• 문(2)작품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주제를 파악한다. • 읽(3)주제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 시나 이야기를 읽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	• 시나 이야기를 읽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	• 시를 읽고 주제를 말할 수 있다.(보충, 심화) • 주제를 알아보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공통)	○	○	○	○	

2) 구체적인 상황을 목표로 제시한 경우(○-○-상황-○), (○-○-○-상황)

학년 학기 대단원	교육과정 내용	대단원 목표	평가(되돌아보기) 학습 목표	수준별 학습(더 나아가기) 학습 목표	목표 일관성			분석 내용
					교내	단원	평가	
2-1 쓰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3) 읽을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쓰(4)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내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웃어른께 부탁드리는 글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내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공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에서는 대단원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2 말듣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4)알맞은 말이나 문장을 용하여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아는 것을 듣는 이가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아는 것을 듣는 이가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을 보고 놀이하는 방법을 친구들이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보충) •물건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심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충심화의 학습목표가 대단원, 평가 학습 목표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1-쓰기-넷째마당>과 <2-2-말듣-첫째마당>의 경우, 평가 학습과 수준별 학습 목표가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 내에서 구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1-쓰기-넷째마당>에서는 대단원의 목표가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내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인데 평가 학습에는 특정 언어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웃어른께 부탁드리는 글을 쓸 수 있다.'가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2-2-말듣-첫째마당>에서는 대단원의 목표가 '내가 아는 것을 듣는 이가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인데 수준별 학습에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놀이하는 방법을 친구들이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와 '물건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가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목표 제시는 다른 대단원이나 다른 학습 유형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목표 진술 방식에 있어서 다른 대단원과 통일된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과서 사용자에게 다소간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상황을 목표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나 활동형의 목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성취 기준과 평정 척도를 밝혀 놓아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교과서는 여러 자료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교과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수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교과서 발행 제도로서 국정 교과서 체제를 취하고 있고, 지나친 학업열과 사교육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각종 평가의 범위를 가급적 교과서로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교사들도 당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내면화하고, 해당 교과목의 학문적 변화와 지향점을 인식하여 교육적으로 실천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꼽고 있는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완성도 높은 내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는 국어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결정해야 하고 그 목표가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목표가 교육과정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단원 내의 평가 학습 목표와 수준별 학습 목표에 일관성 있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각각의 목표가 대단원 목표와 관련을 맺는 유형은 총 19가지 정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단원 목표는 교육 내용과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동시에 대단원 내의 평가, 수준별 학습의 목표에도 일관성 있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단원 목표가 전체 대단원을 제어하지 못한 채 각각의 학습 단계가 서로 겹돌고 있는 단원도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학습과 수준별 학습의 목표가 대단원 목표와 다르게 설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 대단원 중 무려 36개(24.5%)의 대단원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대단원 체제 자체가 실패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목표 일관성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단원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교과서 개발이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빚어진 실수이거나 시행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기 위해 언어 사용의 실제에 적합한 텍스트 유형과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제재를 엄선하는 일, 기본학습과 평가 학습과 수준별 학습의 층위를 고려하여 학습 상황을 구성하는 일만 해도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단원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교육과정 내용과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할 때 비교적 덩치가 큰 대단원 체제를 취하게 된다면 대단원 내의 하위 학습 단계의 완성도를 높이되, 개별적인 학습 단계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대단원 목표가 대단원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지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겠지만, 현행 교과서의 공과 과에 대한 다층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통해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국어교과서 개발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연구보고 RRC2002-12-1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2002-5-1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예시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200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1-6학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신헌재 외(2005),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